작품명 : 범평 아파트

<범평 아파트>는 총 36가구가 거주하는 공동(空洞)주택이다.

작품은 책장과 3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책장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상징한다.

옛날에 지어졌던 아파트의 형태에서 모티프를 가져 왔다.

36권의 책은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 속의 인물들은 저마다 ‘결핍’을 가지고 있다. 자아정체성의 결핍, 감정조절능력의 결핍, 사회성의 결핍…

사회가 세운 기준에 따라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수에게, 이들의 삶은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읽힌다.

책에 뚫린 구멍은 36인 각자의 결핍을 상징한다.

누구나 하나씩의 결핍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비어 있는 책장 한 칸에는, ‘나’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꽂아 주시기를 바란다.